

👉 함께 푸는 미스터리 <Ⅲ>해답

산업스파이 살인사건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우선 연락원이 로커속에 가방을 넣고 잠근 뒤 전화로 폭탄협박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강경감은 대답했다.

이들이 연락원의 소지품이 든 주머니를 들고 공항에 도착하자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또 이렇게 가정할 수 있지요. 연락원이 전화를 건 이유는 대혼란을 자아내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 자는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방과 함께 잡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요.』

『그가 전화를 건 뒤 로커로 돌아와서 다시 가방을 끄집어 낸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강경감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최교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자는 가방을 버리거나 또는 점선하게 되어 있는 바이어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그 자가 서류와 함께 체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가방을 바이어에게 넘길 생각은 없었어요. 그자는 다만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요.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로 번지고 말았지요.』

강경감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으나 최교수의 다음 설명을

기다렸다.

『아시다시피 바이어는 연락원의 인상착의는 알고 있었고 그가 로커로 간 뒤 전화를 걸고 다시 돌아와서 가방을 끄집어 내어 화장실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 같소.』

『그리고 죽었던 것인가요?』 강경감은 물었다. 최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실상 경찰이 잡고 있는 그 사람은 연락원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소. 그는 연락원의 뒤를 쫓아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의 목에 철사를 걸었던 것이요. 그를 죽인 이유는 연락원이 자기를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방을 열어보니 속은 비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연구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교수는 답변 대신 연락원의 열쇠뭉치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강경감은 하루전 연락원이 머물던 로커앞으로 데리고 갔다. 최교수는 열쇠뭉치의 열쇠를 하나씩 로커에 꽂아 보았다. 마침내 한개가 맞아 떨어졌다. 최교수는 로커를 열고 갈색가방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연락원의 시체와 함께 발견된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다. 최교수는 강경감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경감이 사건설명을 할 때 나는 어찌서 연락원이 두번씩이나 로커를 내왕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곧 이 로커속에는 2개의 가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연락원이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보다 일찍 빈 가방을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요. 그리고 어제 그가 터미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서류를 넣은 가방을 로커속에 넣었어요. 그는 경찰에게 미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폭탄협박을 한 뒤 가방을 바꿔치기하여 빈 가방을 끄집어낸 것이지요. 만약에 잡혀도 빈 가방만 발견하게 말이에요. 그는 일단 모두 조용해지면 로커에서 서류가 든 가방을 찾아 서류를 팔아 넘겨 한밑천 벌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최교수는 가방을 열었다. 속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경찰이 연락원의 몸에서 로커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열쇠가 이 열쇠뭉치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오. 연락원은 사전에 계획하여 로커의 열쇠를 복제했던 것이요. 그는 열쇠뭉치속에 그 열쇠를 섞어 넣어서 경찰에게 수색을 당해도 집에서 쓰는 열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락원은 우리의 미행을 따돌렸던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바이어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강경감은 물었다.

최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었지요.』

김탁씨와 조박씨는 두사람 모두 훔친 재산을 소유한 죄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경찰이 공항에서 체포한 사나이는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살인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